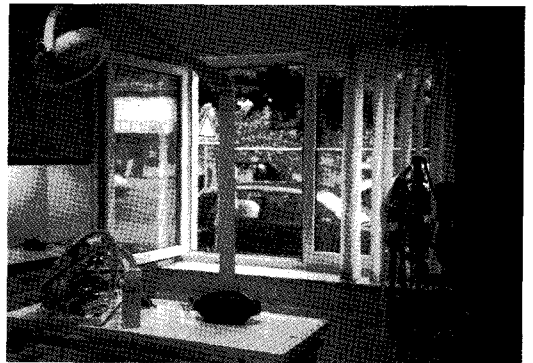


세계교육기행 탐방보고 III (덴마크, 독일)



한국사회 소동물 분야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사회 복지에 기여하려면?

동물매개치료의 활동들을 보고자 하였으나, 아직까지 독일과 덴마크에서도 이 분야는 활성화되어 있지 못해 탐방의 기회가 없었다. 그러나 말을 이용하여 척추 환자들의 재활을 돕거나 맹도견의 활용도가 크다는 것은 여러 사람들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동물병원 A(Tier rztliche Praxis) 수술실전경 (매우작은 흡입 마취기·작지만 편리한 조영등·바깥으로 큰 창이 있다.)

① 독일, 덴마크 개인 동물 병원

우리가 독일과 덴마크를 여행하면서 들렀던 개인동물병원은 Tier rztliche Praxis(이하 A)와 Tier rztlichen Klinik(이하B)(독일) 또한 Tappern je Dyreklinik(이하C)(덴마크)라는 곳이었다.

일단은 각각의 동물병원의 성격, 특징, 경영이념이 다르고 또 국가적인 병원환경이 다르므로 절대적인 차이가 난다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나름대로 비교를 통해 각각의 동물병원의 장단점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동물병원들을 소개 하자면

A: 이 병원은 독일 하노버 시내에 있는 동물 병원으로서 시내 중심지에 자리 잡고 있는 만큼 고객들의 인지도가 상당한 병원이었다. 진료는 소동물을 중심으로.

B: 이 병원은 Sarstedt라는 중심지 외곽에 있는 동물병원으로서 병원내에 대동물과 소동물을 진료할 수 있는 곳이 따로 있으며 특히 대동물중 말을 진료, 입원관리하는 곳이 잘되어 있었다. 또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아버지와 아들이 수의사여서 직업을 계승해나가고 있었다는 점이다.

C: 이 병원은 copenhagen 시내에서 버스로 1시간 넘게 달려서 도착할 수 있었는데 copenhagen 내에서는 왕립수의과대학내에 있는 동물병원으로 인해 개인동물병원이 거의 존재하

지 않는다는 것이 상당히 특이했다. 어찌되었든 이 병원은 부부가 의사였는데 대동물과 소동물 둘다 진료하는 경향이었고 가정집 구조에 가까운 동물병원이라 할 수 있다.

경영관리	A	B	C
병원 경영투자	무리한 확장보다는 병원의 재정능력에 맞는 확장.	기기와 시설을 충분히 사용하려는 자세가 보인다. 아주 넓은 기자재도 충분히 사용하려함	절대 무리하지 않는
직원숫자	수의사 2명 (1명보충예정) technician 2명	수의사 5명	수의사 2명 technician 1명
직원채용	자신의 기술을 상호적으로 보완해줄 수 있는 사람	가족적인 형태를 중심으로 한 직원 채용방식 혼용	가족적인 형태
기타	소규모로 시작 병원 확장, 장비보강이 계속적 목표		

진료	A	B	C
내원시 절차	ID card를 이용 예약제 실시 (10-15case/day)	평범한 병원의 형태	평범한 병원의 형태
진료시 절차	치료와 consulting을 같은 방에서 병행	치료와 consulting을 다른 방에서 함	수술실과 진료실을 혼용해서 쓰는 경향이 강했다
진료시 문서작성	전산처리		전산처리와 문서처리 병행
진료의 차별화	specialist 2명으로 진료의 전문화	대동물과 소동물의 개별화된 진료실	소규모 소동물 진료
대기시간과 진료시간	대기시간을 줄이고 고객에게 충실한 진료를 한다	대기시간이 상당히 길어서 고객들이 많이 기다렸다	
입원관리	입원실의 효율을 위해서 전자렌지나 세탁기, 건조기를 이용한다. 처방식을 이용, 입원실을 철저히 관리하기 어려우므로 되도록 입원을 받지않는다	대동물이 입원할 수 있는 입원실도 마련되어있다. 그러나 ICU같은 것은 없는 듯하였다.	처방식을 이용, 입원실이 뚜렷하지 않았다
임상협회	AAHA협회회원		
대체의학이용도	침구요법(많은 편은 아니다)		침구요법(많은 편이 아니다)

2. 각 동물병원의 세부사항

이제까지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제는 우리나라의 동물병원에 비해 어떠한 것이 다른지 생각해보자.

3. 각 동물병원의 특징

A 동물병원(Tier rztliche Praxis)

상당히 배울점이 많은 동물병원이었다. 환축 비율은 개 50%, 고양이 30%, 기타 20%였다.

▶ 경영 및 직원관리

먼저 경영 및 직원관리에 대해 생각해 보자면 원장이 수의사를 채용할 때 가장 우선시 한점은 자신과 상호보완적 역할과 호흡이라 생각하는 것 같았다. 단지 의학적 실력을 전부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었다.(물론 채용된 수의사의 실력이 좋다고 자랑했지만) 또한 직원을 많이 늘리지 않고 소수로서 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는 점이다.(아무래도 인건비가 높기 때문이라 생각되었다)

▶ 진료의 차별화

예약제(출근시 말기고 퇴근시에 데려간다. 진료시간: 월-금 9-12, 15-19시)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우선시한다.(고객에게 충분한 consulting을 제공한다) 내과학을 전문적으로 함으로써 특성화된 병원을 구성한다.(심혈관계 전문의 1인, 위장관계 전문의 1인)

▶ ID card

예를 들자면 이 병원은 고객마다 ID card가 존재하므로

고객이 올때마다 늘 번거로운 체크를 할 필요가 없을 뿐더러 방마다 단말기 형식의 컴퓨터를 가동시켜 수의사와 technician들의 일의 효율성을 올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이 ID card는 혈액검사 기기에서 체크하는 것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데 이것이 바로 컴퓨터에 저장되는 형식을 띄고 있었다. 그러므로 문서관리에서 빠른 일의 처리로 고객은 더욱 빨리 그리고 많은 시간을 수의사와 상담할 수 있고 수의사는 나름대로 시간의 절약과 일의 양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 기자재의 효율성

먼저 병원의 기자재는 우리나라의 동물병원과 별반 다르지 않았으나 가장 큰 차이는 기자재들이 용도에 적절한 만큼의 가격과 성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기능은 다양하나 가격이 비싼 기자재보다는 소형의 꼭 필요한 기능만 있는 저렴한 기자재사용) 그러므로 상당히 이동이 용이하고 작은 기자재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병원에 있는 진료대가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체중까지도 잴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서 아주 편리해 보였다.(눈직적으로 체중을 측정하거나 약물을 투여하는 것을 어느정도 막고 또 체중을 측정하기 위해서 동물을 이동 시키지 않아도 된다)

▶ 방구조의 효율성

이 병원은 방배치와 형태등이 인상적이었다. 방의 형태가 각기 성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병원내에서의 움직임이 굉장히 효율적인 모습이었다. 이것의 예로는 넓고 이중으로 된 출입문과 약간 좁은 lobby, 상당히 넓은 진료실과 대기실, x-ray기기에 맞는 형태를 지닌 직사각형으로 긴 x-ray실, 좁은 공간과 문의 열고 닫는 공간을 극복하기 위해 단순한 직사각형형태의 방구조에서의 탈피등은 무척이나 부러운 점이었다.

▶ 병원의 interior

이병원은 고객의 심리상태를 안정감을 주고 병원의 밝은 이미지를 만들려고 노력한 흔적이 엿보였다. 일단은 색의 배치에서 밝고 넓은 느낌이 들도록 흰색이 주종을 이루었지만 액센트적인 색으로써 산뜻한 파란색으로 기본적인 interior를 꾸며 놓았다. 또한 lobby에 들어서면 벽면에 안정감이 들도록 인테리어를 꾸며 놓았다. 결과적으로 이 병원의 interior의 느낌은 깔끔하고 세련미가 보이고 여유로운 느낌이 들어서 매우 좋았다. 또한 진료실의 수납공간은 모두다 내장형이었고 입원실의 기자재도 불박이식의 형태를 띄어서 난잡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신경을 썼다. 진료실, 대기실, 수술실에는 넓은 창이 나있어서 밝은 채광과 방을 더욱 넓게 보이게 하고 갑갑한 느낌을 덜 수 있게 하였다. 개인적으로 수술실에 있는 넓은 창은 본인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이 수술실에 창으로 인해 이 방은 수술실임에도 불구하고 안정감과 밝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다.

▶ 대체의학(alternative medicine) 이용도

고객이 원한다면 침구요법을 하는정도(5~6년정도 경과) 아직 발전 단계이므로 특정한 질병에만 사용하고 있다 (allergy, 위장관계, 후구마비etc.)

▶ 외부정보이용능력

AAHA(american animal hospital association) 협회회원으로서 이러한 정보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B 동물병원(Tier rztlichen Kliniken)

아버지와 아들이 경영(할아버지까지 3대)하는

종합동물병원의 형태를 띤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병원(1918년 설립)

▶ 경영

아버지가 경영하던 병원을 아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병원의 형태를 띄고 있었다.

수의사 채용인원 : 5명

▶ 진료

시내 외곽에 위치한 탓인지 대동물과 소동물을 각각 진료할 수 있는 병원구조 및 기자재를 갖추었다. 병원 개원 초기에는 말만 진료했으나 계속 소동물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진료실도 상당히 넓었다(아무래도 땅값이 싼 것 때문인것 같다)

▶ 기자재이용

기자재들이 병원이 오래되어서 그런지 굉장히 낡아 보였으나 기자재들을 아주 잘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 배울점이었다. 매우 존경스러웠다.

C 동물병원(Tappern je Dyreklinik)

copenhagen 시 외곽에 위치한 동물병원(copenhagen 시내에는 왕립수의과대학 동물병원이 있어서 개인 동물병원들이 외곽에 위치해 있다고 한다)

▶ 경영 및 병원분위기

부부가 경영하고 진료하는 형태이었고 집이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상당히 작고 소담스런 분위기의 병원이었다(아무래도 덴마크의 가정집 분위기가 묻어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진료 및 기자재

대동물인 말과 소동물인 개와 고양이를 진료했다. 그런데 진료시에 사용하는 기자재는 대체로 소동물용으로 맞추어져 있던 것들이었다. 하지만 기자재 대부분이 움직이기 쉽고 이용이 편리한 또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형태를 띄고 있었다.

▶대체의학(alternative medicine) 이용

침구학을 상당히 이용하려는 노력이 보였다.(단 고객이 원치 않을 때 이용하지 않는다.)

4.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 . . .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 우리나라의 개인 동물 병원은 어떻게 나아가야하고 또 개선 해야할 점에 대해 우리들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다.

1) 공간효율성

먼저 공간적인 효율성(구조적 효율성과도 상당부분 유사)은 병원내에서 진료를 하다보면 방의 구조나 배치를 바꿈으로써 일의 효율을 높이는 것은 많이 느낄수 있는 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비단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효율성은 수의사 뿐만 아니라 고객과 내원, 입원한 동물에게도 상당한 stress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2) 경제적 효율성

경제적 효율성은 단지 고객에게 많은 진료비를 내게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병원 관리에서 효율적인 운영은 더욱 많은 이윤을 올릴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병원경영에 대한 수업에 참가하고 또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3) 시간적 효율성

진료시간 단축은 병원경영에 있어서 필수적이기는 하다. 한 케이스당 진료시간이 짧을수록 수의사에게는 단기적으로 득이 되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고객에 대한 충실한 consulting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손실이 나타나거나 장기적인 발전이 어려울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진료시간의 단축(양적 개념)이 우선시 되기 보다는 고객에 대한 질을 우선시하고 그것에 맞춰 진료를 하는 수의사를 늘려 하루당 고객의 수를 늘리거나 예약제같은 양적인 부분을 조절하는 것이 더 현명할 것이다. 자신들의 역량에 맞게 병원을 운영한다. 입원실을 운영하지 않으려 한다. 입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24시간 대기 수의사가 있어야 하고 엄격하고 철저히 관리해야한다. (입원으로 인해 다른 환축으로부터 전염성 질병을 옮을 가능성이 더욱 높고 stress로 인한 건강 상태 악화가 많다.) 그러므로 고객에게 home care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교육을 시켜야한다.

4) 방의 구조적 효율성

진료실, 수술실, 입원실, 대기실 등의 구조와 성격은 각기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에 맞게 하기에는 경제적으로나 다른 이유로 어려운 점이 있다. 하지만 병원에서 interior가 차지하는 부분이 큰 만큼 노력해야할 부분이다.

5) 의료정보의 효율성

전산처리를 통한 비문서화는 병원관리나 직원들의 피로도 더 나아가서는 문서화에 따른 공간차지 문제나 비신속성, 통계처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정보를 통해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ID card를

발급하는 것은 상당히 편리하고 많은 효용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새로 발표되는 의료 정보의 획득은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책으로 문서화되는 시간을 기다린다면 신속한 치료나 진단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신속한 정보 획득을 위해서라도 저널이나 임상학회같은 협회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외국저널을 보는 것도 외부정보를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6) 수의사의 전문성과 축주교육

‘독일이나 덴마크의 축주들이나 사회 전반적으로 동물에 대한 환경이 훨씬 나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수의사의 사회적 지위도가 높아 가고 있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사실이다(물론 동물병원의 경쟁이 심해지는 것은 사실이나). 하지만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수의사 스스로가 고객에 대해 더욱 전문적이고 충실한 서비스를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환경을 만들어 나가려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또한 축주를 교육하는 것은 절대적인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7)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 :

독일이나 덴마크의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 지위도가 굉장히 높은 반면에 우리나라의 수의사의 사회적 지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단지 독일이나 덴마크가 선진국이기 때문에 높다고는 생각치 않는다. 경제적으로 소득이 많고 사회적 지위면에서 높은 위치에 있어 수의사라는 직업의 자부심을 가지기 보다는 스스로가 수의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또 그 이전에 자기자신에게 많은 보람을 주고 있다는 것이 우선시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런 자부심은 스스로가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에서 tier rzfliche praxis의 Dr. Lepold-Temmler(병원원장)와 한 이야기중 발췌한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1) 예약제에 관해

고객의 불만중 가장 큰 것은 기다리는 시간에 비해 진료시간이 짧을 때 많이 발생하며 상담이 불충분하다고 느낄 때 불만은 축적된다. 뿐만 아니라 수의사가 무턱대고 고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약제에 의해 수의사의 시간활용을 높힐 수 있다.

2) 하노버대학과 위치상으로 가까운 곳에 병원을 개원하여 중증질환이나 장시간의 복잡한 수술은 대학동물병원으로 보내서 고객의 대기시간을 최소화시키며 수의사의 고객당 진료시간의 불균형을 줄이고 스트레스 누적을 줄임으로써 고객들에게 더욱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specialist 2명이 진료하므로 전문적인 진료를 행할 수 있고 다른 전공을 가지고 서로의 팀웍이 잘 맞기 때문에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병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재투자자를 계속한다. 처음 개원시에는 매우 소규모로 혼자서 경영했으나 지금의 규모까지 발전했으며 조만간 수의사 1명을 더 보충하고 앞으로 계속 병원을 키워 나갈 계획이다.

4) 하노버 수의과대학의 커리큘럼에 있는 동물병원 경영수업을 수강하였고 경영에 관한 부분을 모임을 통해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경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강조.

참고 사항

독일 전체 수의사인구 : 26,000명

하노버 수의사인구 : 700명

하노버동물병원 : 38개 (하노버 전체인구 60만)

② 덴마크 왕립 수의과 대학 동물 병원

1. 현 황

1년간 평균 15,000마리의 개와 고양이를 진료한다. 현대적인 의료시설과 체제가 매우 인상적임. (전북대 의대 종합병원 시설에 못지 않음)

각 진료실, 처치실, 수술실 마다 구비된 각종 기자재가 국내의 작은 동물 병원 전체의 수준과 같음.

전체적인 분업화 : 접수 창구부터 시작하여 말 그대로 종합병원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피부과, 안과, 내과, 외과, 방사선학과 등 전문적인 치료가 행해지고 있음.

2. 감 상

연간 15,000마리의 환축을 치료하다보면 어쩌면 방대하고, 선진적인 기구와 시설은 필수 불가결의 요인일지도 모른다. 사실 좋은 시설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만 맞다면 우리 나라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연간 15,000마리의 환축이라면 그만큼 많은 수입이 가능하고 이 수입의 몇 %만 재투자하여도 그네들의 종합병원의 수준의 병원을 우리도 갖출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국내 현실상 소동물 병원 운영 상태가 그 만큼의 수요가 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선 현실적으로 아직은 시기 상조라 생각한다. 사회 전반적으로 개나 고양이를



덴마크 왕립 수의과대학 동물병원 처치실

동반자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식구가 아파서 치료를 받는다는 의식을 가진 이들의 병원 시설과 우리의 애견에 대한 정서를 비교해 본다면 현재 국내의 소동물 병원이 절대적으로 크게 떨어진다고 생각할 순 없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들의 훌륭한 시설은 크게 동경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다만 그네들의 애견에 대한 사랑과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여기는 의식들이 아직 우리가 갖지 못한 점들이라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소동물병원 뿐만 아니라 전 수의사들은 이점을 의식하여 개인적인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애완 동물의 사랑 정신부터 국민들에게 홍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의식의 개혁이 우리들의 작은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면 결과적으로 애완 동물의 질병 발생시 축주들의 많은 수요를 유도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국내의 동물병원의 시설과 수준도 그네들 못지 않게 향상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무척 감동스럽게 보고, 가장 크게 배워야 할 점도 기본을 중시하는 그들의 정신이다. 예를 들어, 피부과 병동의 수의학의 특성상 전염을 고려하여 거의 반 격리 상태로 병원의 외곽 지대에 배치 했다는 점이다. 국내 현실상으로 이 점은 무척 배제되어 있는 상태이다. 사실상, 크게 고려하지 않고 치료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가지는 X-ray 촬영실을 방사선 누출을 고려하여 병원의 치료병동과는 많이 떨어진 곳에 설치 했다는 점이다. 문 하나, 벽 하나로 격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멀리 설치했다는 점이, 짧은 생각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의구심마저 들게 할 정도였다.

결론적으로 덴마크 수의사들은 병원 시설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도, 치료하는 이들의 편의보다는 치료받는 애완 동물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그들의 기본을 중시하는 동물 사랑의 의식이 오늘날 그들의 엄청난 수의학의 발전을 이룬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애완동물도 환자(者)로서 대하는 그들의 기본 중시 의식이 아닌가 본다.

③ 독일 하노바대학 부속 동물 병원

탐방일시 : 1999년 7월 21일 수요일

탐방배경

오전에 하노바 수의과대학을 방문하고 학장님 접견후 바로 하노바 동물병원으로 향했다.

하노바 대학은 도심으로부터 교외로 이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 동물병원은 이사 하지 않은 상태였다. 프래하킹 박사가 역시 동물병원을 섭외해 주셔서 별 무리 없이 일정대로 견학을 수행할 수 있었다.

단, 말 동물병원은 독일 TV프로그램 촬영이 있는 관계로 못하고, 조류동물병원, 소동물 (small animal) 병원, 돼지 병원을 탐방하고 소동물 병원과 말병원을 훑어 보는 순으로 오후 일정을 진행했다.

1. 조류동물병원

하노바 조류 동물병원은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새병원이다.

독일은 참새를 제외한 모든 새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으며, 이미 새가 애완동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야생조류도 애완동물로 기르고 있다. 새에 대한 국민들의 사랑은 어느 동물 못지 않은 것 같았다.

1) 시 설

조류병원은 2층 건물로서 해부학실과 건물을 반씩 나눠 쓰고 있었다. 입구에는 올림픽에서 3년 연속 금메달을 땀던 말의 뼈를 표본으로 만들어 하노바 말의 위상을 자랑하고 있었다.

대기실, 진료실, x-ray 촬영실, 실험실, 연구실, 강의실 및 세미나실, 연구생 방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시설면은 견학 순서로 기술하고자 한다.

◆ 대기실

그야말로 새와 주인이 진료 순서를 기다리는 장소이다. 벽에는 각종 새 포스터를 붙이고 테이블에는 동물 잡지가 구비되어 있다.

의자는 벽을 둘러 주인들이 서로 마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대화 분위기를 유도하기에 적합한 구도이다. 또 의자가 벽에 붙어 있어 대기실 가운데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게 된다. 조류는 특히 전염병으로 부터의 예방이 조류 건강에 중요한 관건인 만큼 주인의 활동 반경을 철저히 대기실로 한정하고 있었다. 복도에는 특별한 바리케이트는 없었지만 안내자의 말에는 자신감이 있었다. 주인과 새의 건강에 아주 중요한 규율이다.

◆ 진료실

진료대가 작아 새 진료실 입을 알 정도로 소동물 진료실과 별 차이는 느끼지 못했다. 진료기구들이 좀 더 작고 세심해 보였으며, 그 형태는 소동물 것과 역시 같았다.

X-ray 필름 판독기가 벽에 있다. 진료기록은 바로 컴퓨터 프로그램에 저장하고 있었지만 벽 한 쪽에는 진료 카드로 보이는 서류를 정리해 놓고 있었다.

◆ X-ray 촬영실

조류에서도 X-ray 촬영을 하고 있으며, 촬영대는 작았으나 촬영기는 대형이었다. 아마 구형이라 그런 것 같았다. X-ray 필름이 조류용이므로 작다. 현상은 자동현상과 수동현상을 병행하고 있었다.

촬영실과 현상실이 함께 있다. 조류는 깃털이 없다면 체온 상실이 크므로 소동물 처럼 털을 깎고 촬영할 수 없다. 또한 주인들은 자신의 새의 깃털에 조금이라도 손상이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촬영 하는데 판독 하는데 많은 애로 사항이 많다고 이야기 한다.

마침 가카류라는 앵무새 종류의 새 필름을 볼 수 있었다. Aspergillus 감염이라 했다.

◆ 실험실

모든 병의 정확한 진단은 실험실 검사가 필수다. 이곳에서는 진료실 한 쪽에 마련 되어 있었다. 칸막이 등으로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기생충 검사나 세균 배양을 한다.

◆ 연구실

새를 사랑하는 독일 국민들은 새가 아프면 병원으로 데려오지만, 모든 아픈 새가 완쾌하지는 못한다.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새주인들은 보통 새를 학교에 기증하게 된다. 병원은 이를 접수하여 각종 실험실 검사와 부검을 통해 연구한다. 같은 병이 발병할 경우 같은 진료포기와 같은 사태가 생기기를 바라지 않는 새주인과 수의사의 체계인 것이다. 역시 소동물 분야에서 우리나라도 하고 있는 대학의 역할이다. 새는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많으므로 강조되는 체계이다. 연구실은 진료실과 연결되어 방으로 되어 있고 그리 크진 않았다.

마침, 연구실에는 새끼에게 시달리다 상처를 입고 2차 세균 감염으로 죽음에 이른 어미새의 시체가 있었다. 날개 깃털이 심하게 손상되어 있고 가슴 쪽에 출혈이 있는 상태였다. 주인은 새의 상태가 소생이 어려운 상태임을 이해하고 학교에 기증했다.

◆ 수술실

수술실은 2개의 수술대가 준비되어 있다. 보통 동시에 수술이 진행되고 20명 정도의 학생과 수의사가 수술을 하며 학습을 병행 한다. 조류에도 호흡마취를 사용하며 주로 이더(Ethe)를 이용하고 있었고, 주사 마취에는 케타민을 사용한다. 수술은 보통 정형외과 수술이 많다. 판도 박아주고 개복술도 한다고 한다. 안내자는 수술은 거의 사람과 비슷하며 단지 크기가 작아 애로사항이 많다고 이야기한다.

◆ 연구생방

수의사들의 생활방이며, 이곳에서 더욱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된다고 한다. 컴퓨터 3대가 준비되어 있었고 각종 기기들이 이곳에도 배치되어 있었다. 지금은 조류의 신경조직과 독성물에 대한 반응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

◆ 회의실

예닐곱명 정도가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곳에서 수의사들의 세미나가 진행된다.

◆ 야생동물 강의실

2층 높이의 강의실이 있고 멀티미디어 시설이 되어 있다. 강의실 입구에는 각종 새 깃털만 샘플로 전시되어 있었다. 이곳에서 수업이 이루어 진다. 수업은 비디오로 녹화되어 후에 볼 수 있다고 한다.

◆ 사육장

건물 뒷편으로 새장을 만들어 놓았다. 닭부터 앵무새에 이르기 까지 각종 새를 같이 기르고 있었다. 그들은 새들이 함께 살 때의 문제나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일부러 새장을 하나로 만들어 함께 키우고 있다고 한다.

2) 진료 및 수업체계

조류 동물병원은 월, 화, 금요일만 치료를 하고 있다. 다행히 우리가 방문한 날은 수요일이라 일정이 없으므로 병원 곳곳 견학이 가능했던 것이다. 애완조류 담당자와 야생조류 담당자가 파트를 맡아 진료를 진행한다. 새 주인은 대기실을 벗어나 활동 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이미 언급했다. 내원하는 야생조류는 부엉이, 독수리, 매, 앵무새 등이 있다. 치료 성공률은 60~70%정도가 된다고 한다. 독일은 조류 해부학, 조직학이나 마취학이 발달되어 있다. 역시 250명 학생이 1학기 과정에 커리를 정해 수업을 하며, 실습을 수행해야 한다. 조류파트 전문의는 학부때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졸업후 자기노력으로 공부한 후 선택한다고 한다. 전문의 부분은 소동물 병원에서 더 이야기 한다.

3) 독일에서는 이미 조류는 애완동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새들을 단지 관상용으로 키우고 있으나 그 인구는 그리 높지 않다. 천연기념물이라 하면 박제를 만들어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물론 유럽은 도심에 숲과 공원이 있어 새들의 생활이 보장받고 있다. 역시 환경보호 문제를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새들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 배울 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류 백신 파트 등을 도입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 소동물 병원

소동물 병원은 수술 등이 있고 그들이 응급실등 입장을 허락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 건물 견학보다는 세미나 위주로 견학이 진행 되었다. 조류 병원은 함께 돌아 다니며 견학이 진행된 반면 소동물 병원은 학생들 강의실에서 질의 응답을 마친후 병원을 한바퀴 돌아 보는 식으로 진행 되었다.

소동물 병원에 많은 기대를 걸었는데 아쉬웠다. 이상은 세미나를 요약한 것이다.

1) 진료 분야

고양이, 개, 햄스터등을 취급한다. 요즘은 야생동물까지 확대하고 있다. 1년에 약 2만명 정도가 방문한다.

2) 진료체계

컨설팅⇒ 초음파 등의 임상검사 ⇒ 수술 및 치료
⇒ 관리 등의 순서로 진료가 진행된다.

월요일, 금요일에만 진료한다. 오전 9시부터는
진료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의 중요성을 잘
암시 하는 부분이다.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수술 및 치료를 진행 한다.

단 응급 환축에 대하여는 5시 이후에도 수술한다.

3) 시설

우리나라 병원과 특별한 차이는 없었지만 좀더
분화되어 있거나 통합된 기능을 갖는 기기 들이
있었다. 특히 그들은 우리에게 디지털 X-ray
자랑을 많이 하였다. 이것이 진단을 정확하게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한다. 디지털
방식으로 보관을 연장할 수 있다. 판독이 더
쉬우므로 축주에게 설명하기도 이해하기도 쉽다.
구식과 병행하여 진료를 하고 있다고 한다. MRI 와
CT 방이 있고 내시경 등으로 진료, 진단에 이용
하고 있다. 3,300마리 정도 수술을 진행한다.
무균실, 정형외과, 응급실등이 준비되어 있다.

4) 진료

고양이, 새등은 무균실에서 암등에 관한 진료를
진행하고 있다. 암진단은 보통 30%정도가 되며,
처음에는 약물 치료를 시행하다 효과가 없으면
방사선치료를 시행한다고 한다.

5) 병원규모

병원은 3층짜리 건물이었고 정확한 공간은 어느정도
인지 파악하지 못했다. 워낙 못가본 곳이 많은 지라.
하지만 전북대 수의대 병원보다는 컸다.

직원은 정식직원은 15명이며 박사가 24명이고
나머지는 테크니션들이며 전체 약 60명이 소동물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6) 의료보험제도

독일의 동물사랑을 실감할 수 있는 제도였는데,
물론 의료 보험제도는 있다.

계속 치료를 진행하는 환축은 보험료를 감면해
준다. 하지만 갑자기 아프다든지, 응급환축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많아진다고 한다.

이는 그만큼 관심이 소홀한 탓으로 주인의 책임을
묻는 제도인 셈이다.

7) 재정

병원은 학교 부속이므로 연구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국가지원이 많다고 한다.

병원이 큰도시에 있다면 더 지원이 많아진다고
한다. 이는 병원 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국가
지원도 많다(?)고 이해할 수 있다.

8) 여수의사 비율

갈수록 여자 수의사의 비율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남자 수의사들은 여학생들이 고등학교 성적이
좋기 때문이라며 넘기지만, 여자 수의사들은 여자
들이 더 동물애호가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이야기
한다며, 잠시 분위기가 부드러워 지기도 했다.

9) 애완견의 품종

귀, 신장, 관절등 3곳을 중점적으로 검사하여
우수한 종만을 골라 교배를 한다고 한다. 이런식
으로 품종개량을 도모한다.

10) 전문의 분야

역시 조류 병원에 이어 우리의 관심은 그들의 전공 전문의 분야에 있다. 놀랍게도 그들은 학부생일 때는 모든 과목에 같은 학습을 진행한다. 11학기중 기초과목은 물론 임상과목 모든 분야에 걸쳐 이론과 실습을 견비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임상 수의사를 바로 길러 내는 것이다. 독일에서도 전문의 부분은 각광 받는 분야라고 한다. 수의사 면허증 따후, 즉 대학을 졸업한 후 전문기관에서 4년 정도 연구 및 학습을 한 후 위원회에서 인정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전문의가 된다고 한다. 이 위원회에는 도수준에서 부터 유럽전체 수준까지 커지고 있으며, 연계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11) 견학

우리는 임상병리실, 실험실 등 위주로 견학을 했으며, 병원은 들어갔지만 제대로 견학이 힘들었고 응급실은 입구에서 견학하는데 그쳤다. 소동물 병원은 우리가 중점적으로 발전하는 분야이고 그 가능성이 충분한 분야라 이번 대학병원 견학에 기대가 컸는데 아쉽다. 우리를 경쟁자로 인식하고 정보유출을 우려한 탓이 아닐까.

3. 돼지병원

1) 역사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돼지 병원이란 표현을 안내자가 사용했다. 역시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병원이다.

2) 돼지의 위치

독일에서 돼지의 위상은 주식으로 대단히 높은 것이었다. 이 돼지 병원에서는 일주일에 3번정도는

제왕절개를 할 정도였지만, 돼지의 대단위 사육으로 집단 질병이 아닌 개개단위 치료가 기피되면서 제왕절개는 1년에 7마리 정도로 바뀌었다고 한다. 원래는 돼지만을 진료하는 병원이었다. 하지만 요즘은 양, 염소 질병까지 보고 있다. 안내자는 하지만 곧 돼지병원이 필요성이 강조되는 때가 올거라며 연구를 쉬지 않고 있다고 희망을 이야기 했다.

3) 양, 염소의 진료

사람들은 양, 염소를 좁은 우리에 가두어 기르는 등의 사양지식 부족으로 양, 염소의 질병이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독일이나 유럽전반적으로 양, 염소를 애완동물로 기르는 인구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그들은 질병 발생시 꼭 그들을 치료해 건강해 지기를 원한다고 한다. 관절수술에 약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원 돈인 1500DM이 들어도 애완용이므로 치료하고 있다고 한다.

4) 수업

250명 학생이 매일 90분씩 특강을 받고 있다. 돼지, 말, 소에 걸쳐 90분 강의를 받게 되고 학기의 학생은 부검등의 실습을 한다고 한다.

5) 119 훈련

그들은 돼지 운송 등에 있어 운송차가 사고로 뒤집어 질 경우 돼지가 도망갈 경우 잡는 훈련을 미리 하고 있었다. 119 개념의 전문화나 준비하는 자세가 시사 하는 바가 컸다.

6) 연구 분야

돼지를 다양한 환경에서 사육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연구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고온이나 아주 추운 눈발에 돼지를 풀어 놓고 키워놓고 기르다든지 다양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분야는 대학 동물병원이 한시도 간과할 수 없는 분야이다.

7) 규모

독일은 2만 4천가구가 35억마리의 돼지를 기르고 있다. 독일 토종돼지는 아날도쉬라는 돼지이며, 계속 품질개량을 통해 돼지는 커지고 육질이 좋아졌다.

8) 돼지의 질병

독일에서 가장 문제시 되는 질병은 호흡기 질병이다. FMD나 HC는 다행히 발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독일은 돼지 콜레라 청정지역이다.

9) 사육장과 연구

돼지 사육장은 역시 위생상 견학이 힘든 곳이나 우리에게 특별히 배려해 줬다. 사육장의 철은 녹슬지 않는 철을 사용하여 반연구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돼지가 핏다든지 녹등의 문제로 돼지의 건강의 위험을 막고 있다. 맞는 말인데, 우리나라도 녹이 슬지 않던가 궁금해 졌다. 사육장에서는 연구용 돼지와 양, 염소가 있었다. 특히 양, 염소는 애완용으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의 지원과 협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연구 분야는 심장에 관련된 실험이 있었다. 소화기 분야에 대한 관심으로 위에 관을 삽입하여 실험을 하고 있었다. 사육장 한 쪽에는 독일 산양-하이슈코코 라는 종이 있었다. 목에 특별한 꼭지를 갖고 있었다. 사진에서 본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보니 신기했다. 꼭지는 원래 정상이고, 그 기능은 아직 모른다고 했다. 산양앞에는 양을 기르고 있었는데, 양은

역시 위에 관을 삽입하여 위액이나 미생물종을 다른 소화기 장애가 있는 양에게 주도록 준비되어 있었다. 또 다른 돼지 사육장은 유방질병 연구를 위해 기증 받은 것이다.

10) 무균실

돼지를 무균상태로 제왕절개하여 germ free 생산이 가능한 고안물이 있었다. 대학에서 직접 제작하였다고 했다. 구조는 이해하기 쉽고 간단했지만, 생각하는 것을 실행하는 것은 배울 점이다.

11) X-ray 실

돼지 동물병원 담게 X-ray실도 방한개를 아예 할애하였고 보정틀이 있고 기계도 컸다. 바닥이 시멘트로 되어 돼지가 촬영시 상처를 입지 않을까 우려 되었다.

12) 입원실

보정틀을 두어 돼지의 안정을 유도 하고 한마리씩 입원할 수 있다. 입원실에는 간단한 진단적 실험이 가능하도록 간단한 시설이 준비되어 있다. 보정틀은 소독을 하고 항균제를 뿌려도 오래 보존이 가능한 철제를 사용한다.

13) 감상

돼지 병원은 과거의 잘나가던(?) 시절의 역사가 곳곳에 배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사양 분야라고 인정하던 안내자는 하지만 자신들이 연구를 끊임없이 계속하는 이유는 언제가는 자신들의 연구가 사회에 기여하고 돼지

병원이 호황을 누릴 날이 올때를 준비한다고 이야기 한 것은 인상적이었다.

그들의 선진 사양과 진료기술등도 우리가 배워야 겠지만 그들의 배우고 연구하는데 있어 의식을 배우는 것이 더 급하고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다.

4. 소동물 병원

소동물 병원은 안내자가 없이 우리끼리 프래 하킹 박사님과 축사를 돌아보는 식으로 견학을 했다. 소병원에서는 1년에 IBR로 10,000마리 정도 치료를 하고 있으며, 절태술은 300마리 정도 이며, 무유우 치료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약 년 10,000마리 치료하고 있다고 한다.

5. 탐방감상

대학동물병원은 연구파트에 중점을 둬으로써 사회환원에 주력한다.

대학은 학부생을 충분한 임상경험을 하도록 실습과 기회를 아끼지 않는다. 졸업과 동시에 임상 수의사가 생산된다.

조류, 소, 말, 소동물, 돼지 병원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체계적으로 전문화되어 독자적인 운영이 이뤄지고 있었다.

시설이나 체계는 우리나라와 큰 차이는 없으나 규모는 엄청난 차이가 났다

소독 개념 역시 우리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데, 이곳에서는 철저히 이뤄지고 있었다.

조류, 어류 등 우리가 신경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미래를 제시해 주었다.

시설확장을 하더라도 좀 늦더라도 제대로 하려고 하고 있다.

동물애호가 정서가 공감을 이루고 있다. 의료 보험제도나 양, 산양이 애완동물로 자리잡음.

탐방총평

- 후배들도 이런 좋은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 계획한대로 일정이 진행되는 것이 너무 좋았다.
-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 20명이란 숫자가 부담스러울까 많은 걱정은 있었으나, 오히려 탐방하는데는 좋았던 것 같다. 우리에게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이들이 우리가 셋이나 넷이었다면 그정도의 배려를 해주었을까 의심된다. 생활면에서도 1주일 이상을 서너명이 지내려면 분위기를 많이 타고 힘들것이다. 하지만 10명 이상의 사람이 탐방하면서 서로 챙겨주며,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 된다. 졸업여행도 안되겠지만 이런 좋은 기회를 배낭여행으로 만들어 버려도 안될 것이다. 그리고 의외로 단체라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았다는 점 무시 못한다. 독일 하노바 수의대 동물병원을 단지 오후 한나절 동안 모든 것을 보지는 못했을 것이다. 또한 여기 정리한 것은 내가 보고 느낀것에 비하면 너무 미약하다. 하지만 이 글을 읽는 이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또 우리는 견학 첫날 시차 적응에 힘들어 하면서도 지치지 않고 하나라도 더 보고 물어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 이제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견학은 내 대학생활에 가장 큰 동기부여의 기회였음을 의심하지 않는다. 역시 독일의 학부생들의 학습량에 마음이 급해진다. 졸업하기전에 한 케이스라도 더보고 배워야 될것 같다.

대학수업시간